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
마태복음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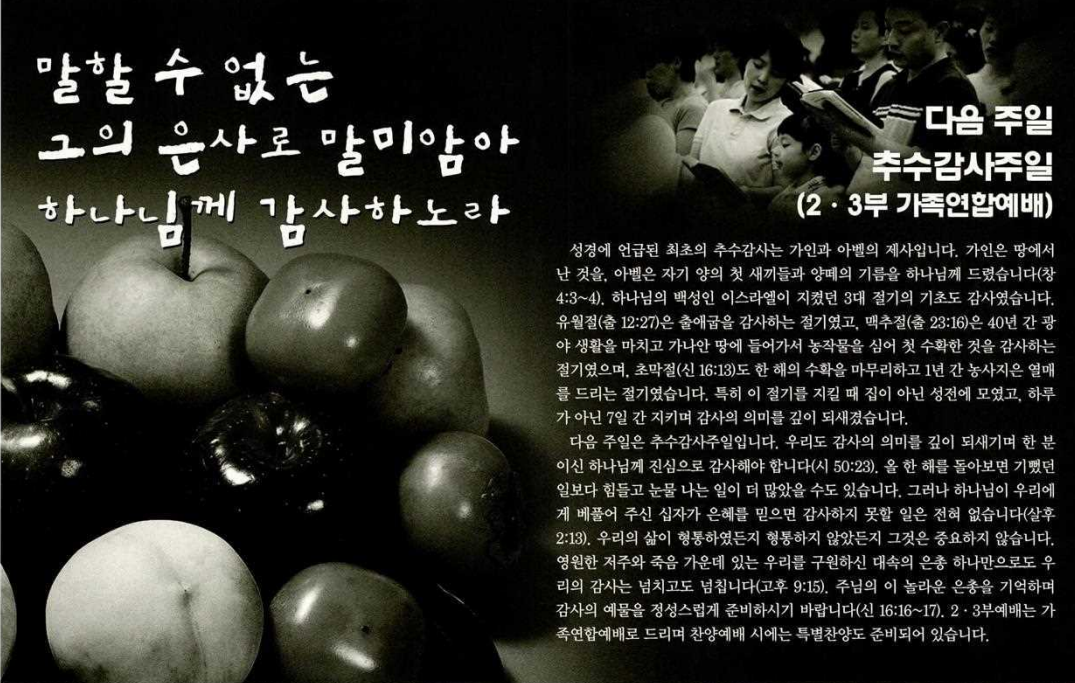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전홍용 편집:양재웅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2·3부 가족연합예배)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추수감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다(창 4:3~4).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과 야곱이 지켰던 3대 절기의 기초도 감사였습니다. 유월절(출 12:27)은 출애굽을 감사하는 절기였고, 맥수절(출 23:16)은 40년 간 땅의 생황을 마치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심어 첫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으며, 초막절(산 16:13)도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고 1년 간 농사지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특히 이 절기를 지킬 때 집이 아닌 성전에 모였고, 하루가 아닌 7일 간 지키며 감사의 의미를 깊이 되새겼습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도 감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한 분 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야 합니다(사 50:23). 율한 해를 돌아보면 기뻐했던 일보다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감사하지 못할 일은 전혀 없습다(살후 2:13). 우리의 삶이 행통하였는지 형통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다. 영원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은총 하나님만으로도 우리의 감사는 넘치고도 넘습다(고후 9:15). 주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산 16:16~17). 2·3부예배는 가족연합예배로 드리며 찬양예배 시에는 특별찬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시 위에
모든 것을 세웁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계시는 우주 만물의 비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왜 존재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다(딤후 3:15~17).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이로부터 모든 분야를 성경적인 진리의 토대 위에서 세워 나아가야 한다(골 2:2~3).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한 전제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 주셨고 또 나타내심이 곧 성경임을 믿는다”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리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곧 성경 안에 있다는 확신으로부터 시작한다(고전 1:30~31).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리를 문화와 전통과 사회, 정치, 종교의 한정된 언어 속에 담아서 계시하신 것은 참으로 오묘한 일이다. 이러한 양면성은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믿음 생활과의 관계에 있다. 살아 계신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와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 즉 성경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있다. 구주이신 그리스도와 성경은 모두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경우가 만들어진 과정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을 초월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구세주가 오실 때에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The Holy Offspring)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최 있는 인간에게 합하셨다(눅 1:35). 마찬가지로 말씀이 기록될 때는 그의 거룩한 말씀이 최 있는 인간들과 합하셨다. 성경에서 사람을 감동하사 하나님께로부터 말하게 하신 것이다(벧후 1:21). 그러므로 살아 계신 말씀은 죄가 없으며 기록된 말씀은

틀림이 없다.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신다.

성경은 인간의 죄와 또 그리스도를 통한 거저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동시에 이와 관계되는 모든 원리를 담고 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성, 지혜, 지식으로써는 성경을 다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더 크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다(눅 10:21~22). 이 진리의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한다. 성경을 떠나서는 진리가 없다. 성경의 조명하심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신성이 작용하는 면이다.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면도 중요하다. 인간 편에서의 논리적인 일관성이, 조명하심에 함께 따라야 한다. 성경 구절의 앞뒤의 문맥에 맞추어 살피고, 분명치 않은 구절은 성경 자체가 가장 좋은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분명한 구절을 찾아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성경남에서 인도하시고 조명하여 주실 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의 역사하심의 사역이었다(요 5:36).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게로 인도하게 하는 일을 행하신다(요 1:45).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자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눅 18:31). 중언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의 손에서 흘러나갈 때에 가장 효과적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인간이 찾고 있는 대답이 있는 무한한 계시를 주신다(골 15:4~7).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가르침과 고침과 용기를 준다. 계시 위에 모든 것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그리고 진리 속에 거할 수가 있다(요 1:14). 아멘.

LIFE OF FAITH

*⁽²¹⁾He said,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I shall return there.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²²⁾Through all this Job did not sin nor did he blame God.
(Job 1:21~22)*

Job was a truly good man with a beautiful family that consisted of seven sons and three daughters. He was very prosperous and well respected in his country, "the greatest of all the men of the east" (Job 1:3). Even God mentioned his excellent standing, "For there is no one like him on the earth, a blameless and upright man, fearing God and turning away from evil" (Job 1:8). One day he received four consecutive messengers each with horrific news. The first messenger told him that all his oxen and donkeys, along with the servants who cared for them had been killed by an enemy. The second messenger told him that all his sheep and the servants who cared for them had been killed by fire from heaven. The third messenger told him that all his camels and the servants who cared for them had been killed by another enemy. Lastly, a messenger came and told him that all his children had died from a great wind that had destroyed the home in which they were gathered. After hearing all this, Job "arose and tore his robe and shaved his head, and he fell to the ground and worshiped" (Job 1:20). Job worshiped God! He declared,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I shall return there.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Job 1:21). With all the bad news his faith was still unshaken. November is the month in which our church focuses on thanksgiving. Most of today's Christians proclaim Jesus as their Savior, believing in Him for eternal life, but constantly complain about their pains and sorrows. In their daily lives they talk good about the Lord God, praising Him for salvation, but when the conversation centers on their hardships they complain. The Bible says, "Through all this Job did not sin nor did he blame God" (Job 1:22). How was Job able to worship God in the midst of such terrible adversity? Why didn't Job blame God or complain?

Job saw the Lord as the source of life. He declared, "The Lord gave" (Job 1:21). His mindset understood that everything given to Him was from the Lord, including his children. Parents are but partners with God in giving life. Many parents think that their kids belong to them, but all life comes from the Lord. Job knew the time he had with his children was by grace. All the good, fun, and happy family times he experienced with his children were from God. James 1:17 reminds us, "Every good thing given and every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s, with whom there is no variation or shifting shadow." God is a great giver! His greatest gift was His Son,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Does your source of life come from the Lord or your own selfishness?

Job saw the Lord as sovereign over the length of life. He declared, "and the Lord has taken away" (Job 1:21). All authority is in God's hands. Giving and taking is not by your authority. Two surprising

thoughts about life are its length when death is near and its brevity when the future seems sure. Time seems so long when things are bad, and it seems so short when things are good. The truth is that eternal life is really long and earthly life is really short. When you complain you're not looking at eternal life, but instead you're emphasizing your life. Your life-breath is in God's hands. The longest span of any human life is but a day to God, who is not bound by time, "For a thousand years in Your sight are like yesterday when it passes by" (Ps. 90:4). Extension of life is a mixed blessing, "As for the days of our life, they contain seventy years, or if due to strength, eighty years, yet their pride is but labor and sorrow; for soon it is gone and we fly away" (Ps. 90:10). Job understood that God has all authority. We should pray to the Lord, "So teach us to number our days that we may present to You a heart of wisdom" (Ps. 90:12). Do you make each day count toward heaven?

Job saw the Lord as the same no matter what happened in his life. He declared,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Job 1:21). This is a man who was living a life of faith. It is easy to bless God when things are good, but Job was able to bless God when things were bad, very bad. He had lost everything. His castle had tumbled, but his faith stood strong. Jesus said that if you want to be with Him in heaven,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t. 16:24). God has been faithful in the past. Why should you doubt His goodness now? God's love is unchanging. Even if things are going badly or have gone bad for you, God loves you in spite of your circumstances. The cross proves God's unchanging love. If doubts start to creep up, just look at the cross. Jesus Christ died for you because of God's love for you. God loves you as you are and wants to save you. Please bring your sins and broken dreams to Him. "Do all things without grumbling or disputing; so that you will prove yourselves to be blameless and innocent children of God above reproach in the midst of a crooked and perverse generation, among whom you appear as lights in the world" (Phil. 2:14~15). Jesus humbled Himself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Phil. 2:8). No matter what your circumstances, God is always good and He will always love you. Trust the Lord and all will always be well, especially when it doesn't seem possible.

My dear friends, stop focusing on your feelings and start focusing on God. A life of faith is a life of righteousness. When you focus on Jesus Christ you realize God never changes, and you can praise the Lord under any condition. This November is a special time of thanksgiving. Please think of Jesus and praise Him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If you open your spiritual eyes to see the wonder and glory of our Savior, you will be able to live a life of faith. Now is the time to stop complaining and really start living for Jesus. 🙏

믿음의 삶

⁽²¹⁾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²²⁾이 모든 일에 욕이 범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21~22)



김성관 목사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둔 욕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던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했으며 그 지방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욥 1:3). 심지어 하나님도 그의 신앙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욥 1:8). 어느 날 욕은 네 명의 사환에게 연속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환은 그에게 모든 소와 나귀 그리고 그것들을 보살피던 종들이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두 번째 사환이 또 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양과 종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사환이 말하는 동안에 세 번째 사환이 와서 또 다른 원수들이 와서 모든 낙타와 종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환이 와서 그에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바로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던 집이 거친 바람에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욕은 이렇게 했습니다.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욥 1:20). 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선포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21). 충격적인 모든 소식을 들었지만 그의 신앙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1월은 우리 교회가 감사에 초점을 두는 달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생을 주실 구주로 고백하지만 고통과 슬픔이 올 때마다 불평합니다. 그들은 매일 주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며, 그분이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지만 곤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쉽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욕이 범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욥 1:22). 어떻게 욕은 그러한 충격적인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왜 욕은 하나님을 욕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삶의 근원

욕은 삶의 근원이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요”(욥 1:21)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사고 방식은 자녀들을 포함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부모들은 단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협력자일 뿐입니다. 많은 부모는 자녀들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주님이 주십니다. 욕은 자녀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오히려 가능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보낸 즐겁고 행복한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17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오랫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위대한 기증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당신의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여러분 삶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기심에 있습니까?

주님은 삶의 주권자

욕은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욥 1:21)라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고 받는 것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두 가지 놀라운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 생명이 길어지고 미래가 확실하다고 느

낄 때 생명이 짧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나쁜 일이 생길 때 너무 길게 느껴지고, 좋은 일이 생길 때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영원한 생명은 진실로 길고 이 땅에서의 삶은 진실로 짧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할 때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보는 대신에 자신의 삶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서 가장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는 단지 하루일뿐입니다. “주의 묵언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찌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시 90:4). 생명의 연장은 독실이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 욕은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2)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있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변함없으시다

욕은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21)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의 찬송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욕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은 파괴되었지만 그의 믿음은 견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천국에 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린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하나님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선함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만약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즉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제발 주님께 나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욕심들을 깨뜨리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빌 2:14-15). 예수님은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8).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맞추어준 초점을 바꾸어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믿음의 삶은 의로움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11월은 특별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서 드리는 찬양을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영의 빛을 잃어 우리 구주의 경이로움과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불평을 멈추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

메시아의 죽음 63

잔 (마가복음 14:36)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

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 이 기도 내용 중 ‘잔’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약성경에서 ‘잔’은 진노와 심판의 의미로 기술되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성전(종교지도자)을 향해서 경고하였다. “여호와와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켈지어다 켈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사 51:17). 예레미야 선지자도 외쳤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렘 25:15). 시편 기자 중 한 명인 아삽은 “여호와와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시 75:8)라고 노래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잔’에 대해 각각 ‘진노의 잔’(계 14:10), ‘땀방한 진노의 포도주 잔’(계 16:19)이라고 묘사했으며, 이것은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혔다.

이와 같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사용된 ‘잔’의 의미를 살펴볼 때 ‘잔’은 분명 진노와 심판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바로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하고 싶었

던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막 10:37)에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막 10:38)라고 질문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일할 진노와 심판의 잔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잔’은 새롭게 바뀌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다(막 14:23~24). 진노와 심판의 잔이 새 언약의 잔으로 바뀐 것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20).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정도로 진노와 심판의 잔인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셨다(히 5:8). 그래서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반복되었다(막 26:39,42; 눅 22:42). 예수님은 자신이 저야 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요 12:32)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의 간절한 기도 후에 군인들에게 잡히는 순간, 칼을 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다(요 18:11).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진노와 심판의 잔을 마셨다. 이 잔은 구원의 역사를 이룬 승리의 잔이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잔’을 원하고 있는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맞게 된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 네 편에서 서서 항상 도우시라.” 아멘.

* 대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00시)에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하나님을 아는 것

(출애굽기 33:13-17)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근심과 불평만 하였다. 금기와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들은 불만해하며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기까지 했다(출 32장).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평안이 없었던 것이다. No God, No Peace(하나님이 없으면, 평안도 없다). 하나님은 “약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친히 말씀하셨다(사 48:22). 이 평강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친히 주시는 평안이다(요 14:27).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출 33:12).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히 11:24,26,28~29).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총을 받는 통로다. 하나님의 은총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 5:1). 하나님의 은총에

서 멀어지면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롬 4:16). 믿는 자가 될 때 의식과 질문이 사라지며 확신을 갖게 된다(딤후 1:12). 믿음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

● 하나님의 길에 초점을 둘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에 초점을 두게 된다. 하나님의 길은 좁고 험한 십자가 길이지만, 이 길만이 천국으로 향해 열려 있는 영광의 길이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 길을 보여 달라고 간구하였다(출 33:13). 주의 길에는 분명 환난과 핍박이 있다(사 63:7,9).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도에 실패하게 된다(시 78:40,72). 실패의 원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보다 넓고 편한 길을 선호하기 때문이다(요일 3:1). 그러나 종국에 모든 것은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사망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2~3). 하나님의 길에 초점을 둘 때 건디기 힘든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 놀라운 은총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 모든 것을 그에게 항복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길을 걷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항복한다. 자신은 완전히 사라진다.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가리라”라는 것이었다(출 33:14,17).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내기나 할 것이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한 항복, 즉 포기이다. ‘포기’는 ‘놓치지 않으려다가 어쩔 수 없이 놓쳐버리는 것’이 아닌 그냥 ‘떨어뜨리는 것(drop)’이다. 믿음의 사람은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한다(창 12:7). 평계와 변명은 이제 그만 하고 이미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께 항복하자(계 3:20).

하나님을 진실로 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분주한가? 회개하지. 우리는 진실로 무지몽매하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앞은 지식과 경험의 아닌, 믿음뿐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에 초점을 맞추어 나의 모든 것을 항복(포기)하자. 그러면 주님이 모두 하신다.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No God, No Peace!” 아멘.

믿음의 용사, 라오스를 찾다!

에바다부팀

에바다부의 청년과 교사 등 총 9명이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엤을 다녀왔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격박한 땅에 십자가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고 돌아온 십자가의 용사들이 전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라.

♥ 저는 사랑부 교사이면서 에바다부 청년에 소속되어 이번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수확로 에바다부 청년들과 선교 준비를 하고, 선교하는 동안 옳고 옳았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소중한 지체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배찬희**

♥ 선교를 갈 때마다 매번 다르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교는 아주 소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친구들에게 자주 선교를 가지고 권유하고 있었어요. **정지호**

♥ 기도로 차분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선교인데, 갈래보겠다는 욕심이 깨졌는지 상대적으로 첫번 선교보다 은혜를 충분히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농라인 협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일주일 동안 한두 명에게 집중해서 전도하기가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최경미**

♥ 저는 농라인 달리기 대표선수로 지난해 올림픽에 참여하느라 선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지만, 올해 마음 편히 선교를 다녀오게 되어 기쁩니다. 제 같은 농라인 학생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것이요. 같이 중보해 주세요! **박희진**

♥ 아는 사람을 통해 라오스 수확을 지원받아 연습을 했습니다. 나라별로 다른 수확을 익히느라 교생은 되었지만, 새로 배운 수확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마음과 느낌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선교사와 꿈을 가진 제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영미**

♥ 선교 가기 전 일터인 춘천과 서울을 오가며 모일에 참석하고, 언어를 익히는 등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불평 아닌 불평을 했었는데, 선교지에 가 보니 농라인 교회도 없고, 믿는 사람도 많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배부른 위장을 한 것이 무효스러웠어요. 앞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성철**

♥ 선교를 갈려면, 먼저 전도 대상자와 친밀감을 높여야 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열심이 준비된 수확로 전하기가 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어요. 얼굴과 나라는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영적 자매가 된 라오스와 많은 영혼들이 사랑합니다. **김희정**

♥ 팀장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팀원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말씀이 욕심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증거를 우리 에바다부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변광재 팀장**

취재·오남규 기자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15일(월) - 11월 20일(토)	청년1부 6팀	장기락
11월 16일(화) - 11월 24일(수)	8교구 3팀	오형석
11월 17일(목) - 11월 25일(목)	13교구 3팀	오동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12일(월) - 11월 20일(토)	6교구 4팀	송영삼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1일(월) - 11월 9일(화)	24교구 4팀	이인숙
11월 3일(수) - 11월 11일(목)	1교구 2팀	이숙희

깊어 가는 가을, 기도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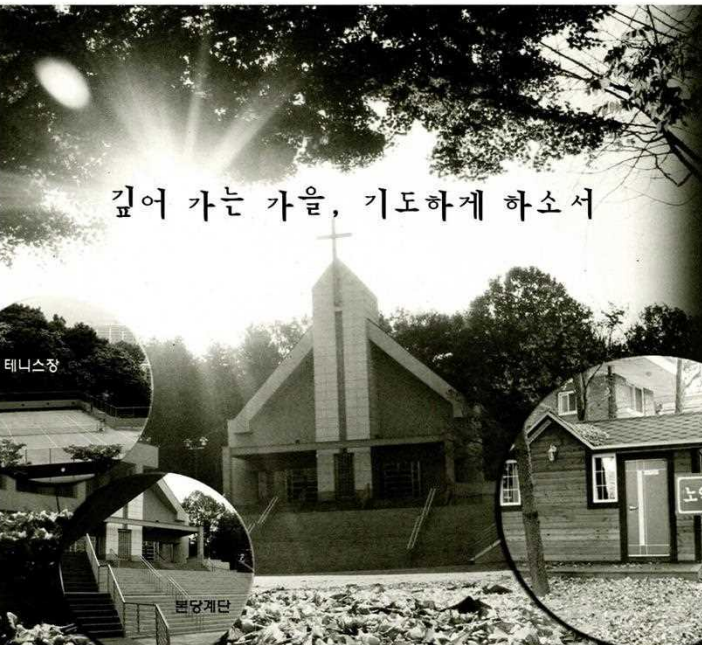
충천기도원

어느덧 가을이 깊어 가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는 충천기도원으로 향했다. 기도원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눈길을 끄는 곳이 있었다. 먼저, 기도원 본당으로 향해 올라가는 계단이었다. 10월 초에 공사하는 것을 봤었는데 이제는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 동안 턱이 높아 한 번에 한 계단씩밖에 오르내리지 못하던 어르신들이 훨씬 가벼워진 걸음으로 계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까지 가벼워졌다.

또, 본당 오른쪽으로 뚝배기 아담하게 단장한 건물이었다. 다가가 보니 바로 '노약자 전용 화장실'이었다. 나는 가끔 예배실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생겨서 너무 기뻐했다. 마침 화장실이 나오시는 어르신 한 분을 만났다. "화장실 사용해 보셨어요?" 너무 반가워하시며 말씀하신다. "난 여기 화장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가 아래쪽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왔어. 그런데 너무 예쁘고 깨끗한 건물이 보여서 기도실이 생겼나 보다 했는데, 표지판을 보고 화장실인지 알았어. 우리 노인들한테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몰라요."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에서 감사함이 묻어났다. 여러모로 늘 기도원에서 오는 많은 성도들의 발걸음과 움직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박인정(집사, 4교구)



2010년 제3차 청지기훈련

‘구속자의 기도’ (요한복음 17:24)

천국이 우리의 소망 말씀을 통하여, 과거 하나님을 떠나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던 날들을 회개했다. 이제 손을 얹 둔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사랑하는 자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따듯한 사랑의 매를 통하여서까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당신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깊은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캄캄해질 때에도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영혼이 썩어질 장막을 떠나는 순간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하다. 과거 젊은 날에 자신의 의지만으로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깊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삶 모든 곳에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다. **2만명대사, 2009**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마 3:2). 이런 년 전 세례 요한의 외침은 지금도 나를 향한 외침이다. 하지만 아직도 진정한 회개를 모르고 살아온 나의 모습이다. 회개는 나의 교만한 심령을 내려놓고 주님의 교제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이 잘 안됨을 솔직히 주님께 고백했다. 주님은 길잡이 나의 심령을 아신 듯 위임목사님을 통하여 이번 청지기훈련 중에 구속자의 기도를 깨닫게 해 주셨다. 주님은 늘 나를 불러 주시고 교제 나누고 싶어 하시고 함께 영광 보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은혜를 항상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을 따르는 믿음의 장영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3만명대사, 8009**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과 찬양으로 온 성도가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이곳저곳에서 ‘하렘, 아렘’ 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마음 속에서도 점점 주님을 찾고 있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육신에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 생애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남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골 3:4)는 말씀을 보고 들었을 때 천국은 믿는 자들의 것이라는 참된 소망을 알았다. 예수님이 지금도 간절히 기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활과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있는 그곳과 그곳 환경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천국을 믿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소망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담대함으로 즐거워하며 빛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한다. **백성대사, 3209**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기도를 하시며 강권적으로 구속의 은사를 주셨지만 여전히 자신을 부린다고 하면서 부인하지 못하고, 순종한다 하면서 순종하지 못한, 매순간 인간의 죄성으로 행한 나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한다.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던 우리 입술의 기도는 세상 것과 내 소유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했던 잘못된 믿음의 기도였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상속자를 택할 받아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좁은 길을 걸으며 살기를 원하고 나의 공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한다. 믿음은 있으나 죽은 믿음이고, 행함은 있으나 행함이 부족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눈속에 있는 돌보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나약함과 이기적 행동으로 살았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은총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하다. 두 세계를 살면서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가슴에 품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구속자의 기도의 음성을 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백성대사, 2209**

죄를 깨닫는 은혜 청지기훈련을 통한 하늘의 소리는 그야말로 하늘이 배설하신 하늘의 잔치에 청할 받은 충현의 제자들에게 온전함과 충만이 넘쳤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관계가 회복되며, 복음을 심령에 확증하는 고백의 제단이었다. 하늘의 선물을 말씀으로 대언하시는 위임목사님의 담대함과 순전한 복음의 증거는 마음을 우주의 블랙홀로 이끄는 신비의 감격을 느끼게 하였다. 그 동안 믿음을 있다 하면서도 나의 육체의 소욕에 함몰되어 성령을 거스르며 격을 세웠던 나의 도리 없는 죄인 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롬 11:32). 어둠은 바로 죄이며 죄에 가뭇으로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역설적인 은혜의 은사를 베푸사 죄인으로서 죄의 본질인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망의 빛과 사랑 아래로 돌아오게 소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셨다. **백성대사, 1209**

인생의 나침반 감사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형식과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배울 수 있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누구 하나 버리지 않고 함께 천국에 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 역시 곧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일 텐데 나의 기도의 목적은 개인의 안위와 건강을 위해서만 집중되었다. 세속적인 욕망은 채울 수 없는 거대한데 끝없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 헛된 기도로 살지 않자 회개했다.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 내 인생의 나침반이 정확한 곳을 가리키는 은혜를 받았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참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니 통쾌할 정도가 기뻐다. **백성대사, 1509**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 나의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모든 것이 나 중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인본주의와 자아가 가득하여 유일한 관점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미 용인이 있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이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앞서고 두 세계 중에서 한 곳만 도달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나를 살리기에서 피 값을 주고 사셨고 처사를 예비하고 계시며 늘 넘쳐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를 도우시라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현대사, 8009**

예수님의 기도를 실천할 때 나 같은 죄악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른다. 연약할 뿐만 아니라 미련하기까지 한 나에게 주님은 영원한 파란치로 친구가 되어 주셨다. 이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다. 열국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내 이웃에게 먼저 알려져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다.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기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실천할 때인 것이다. **이영대사, 4009**

주님의 은총 구속자의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보다 아픔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었다. 이 기도는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였으며, 일상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자기의 이익과 요구를 드리는 기도다 아니었다.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셨으며, 아버지가 행하시는 기도를 드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야말로 내가 드려야 할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기도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나의 의지와 뜻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임을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조현대사, 1509**

새가족양육부 10월 수료자

이 죄인,
용서하소서

✠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건성으로 다니다가 세상 것에 젖어 시들해질 즈음 중천교회에 다니는 오빠의 권유로 몇 번만 가 볼까? 하는 마음으로 등록하고 새가족양육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 주, 두 주 예배 드리는 횟수만큼 "이 죄인 용서하소서"라는 기도가 울려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는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신앙 생활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송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애)

✠ 중학교 때 어머니를 따라 다니다가 최근 결혼을 한 후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의 철저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마음의 큰 안정을 갖게 해 주십니다. (윤종경)

✠ 사실 얼마 때부터 교회에 나갔지만 예수님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직장생활에 지쳐갈 무렵 무언가 마음 속에서 내가 외치고 싶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자친구의 권유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직 잘은 모르지만, 하지만 분명 존재하고,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제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됩니다. 여러 유혹에 못 이겨 교회에 빠진 적이 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채윤경)

✠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쳐진 희생 양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안소미)

✠ 결혼하고 시어머니의 전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거나 불안할 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스스로를 낮추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박진혜)

✠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집 근처 교회를 찾던 중 대략 우배와 함께 가 보았던 중천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좋은 길과 생각, 마음을 가지고 할 상 어떤 역경도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임을 알려 주는 증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정환)

✠ 남편의 전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영원한 존재입니다. 십자가는 힘든 세상에서 저에게 경건함을 알려 주는 증표입니다. 살아오면서 죄인이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교회 다니며 주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잘 이기고 견디게 되었습니다. (정병영)

✠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세요.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은호)

✠ 주님의 은으로 다스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발견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새 얼굴이 되어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직 동생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주님의 부르심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번 시험에 빠져 어우러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시험을 이겨내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양우환)

2010년 마지막 성찬식에서



성찬. 본당에 들어서면서 아, 오늘이 성찬식구나!라며 그제야 알게 된 적이 몇 번이 있는지 세어 보게 된다. "나를 기억하고 기뻐하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할 때는 어땠을까?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는 어린 자식들에게 그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들을 동화 같은 이야기나 아닌, 그들의 삶에 나타난 실제로 고백했을까? 애들의 제왕 가운데 그들을 진전내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성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 아담이 하와를 향해 "이내 내 배 중에 뱀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사람의 고백처럼 오늘 11월의 성찬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는다.

매일 넘어져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나무도, 이 벌도 너를 위해 만든 것이 다. 멀어져 간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들어주지 않는 외침이라도 주님은 나를 향해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신다. 떡과 잔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며, 그때서야 나의 죄들을 돌이켜본다. 일 주일 아니 1시간만 지나도 죄악투성이가 되는 나. 와, 날 깨끗케 하시는 주님! 예 잠깐 감동하며, 아무렇지 않게 죄 속에 빠져든 때가 얼마나 많았었나. 아니, 죄와 싸우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었나? 죄를 사하는 데는 반드시 그 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지어도 파 흘리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라는 고백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아직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며 지독한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버린듯 하지만 또 여전히 그대로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은혜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통해 기억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사랑. 이것이 내 모든 것이 되길 원한다. "예수님이 진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제에, 온 열방이 주님을 뵈나다. 진짜 주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찢어지는 후회로 가슴 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정희(대학부))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중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281	강수희	적응반	10	김대웅
1282	김지영	초등2부	13	김이성
1283	민지우	외선부	25	황정미
1284	윌리엄	외선부	25	황정미
1285	아용주	외선부	25	황정미
1286	노규테	외선부	25	황정미
1287	서수열	외선부	25	황정미
1288	차정수	통신반	9	김정순
1289	김윤진	초등1부	7	김지원
1290	오두탁	통신반	23	이수애
1291	김성남	적응반	10	임정자
1292	김정희	적응반	19	김호중
1293	김중수	통신반	20	이명자
1294	서아윤	유아반	21	서덕순
1295	송금숙	적응반	13	
1296	표세현	대학부	12	
1297	황원성	적응반	8	
1298	이희희	적응반	8	
1299	조소희	초등2부	13	신호화
1300	황윤영	고등부	8	
1301	황예지	중등부	8	
1302	황예지	초등2부	8	
1303	이효진	적응반	2	
1304	김다솔	중등부	23	황원성
1305	최정숙	적응반	21	권정자
1306	이민정	적응반	18	이기건
1307	박숙재	양육반	3	최미자

